

물류 에너지 소비 감축 시급하다!

현대연구원, 에너지 소비량 연평균 8% 증가 ... 마스터플랜 필요

물류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월8일 <물류 부문의 에너지 과소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물류 에너지 소비는 1980-2006년 연평균 8.0% 증가해 일본(1.9%)에 비해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육상수송의 비중이 커진 반면 철도수송 비중은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006년에는 에너지소비 1톤당 화물수송량은 12.9톤으로 일본 52.1톤의 4분의 1에 불과했다”며 “에너지소비 1톤당 여객수송인원도 227.3명으로 일본의 847.4명보다 크게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물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에는 물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2.5배 늘어 OECD 평균인 1.3배를 초과했다.

관계자는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급증세를 감안하면 물류 에너지 절감이 시급하다”며 “현재 수립돼있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친환경 운송수단이나 물류시설 및 장비 등을 확충하는 하드웨어 측면에 치중된 만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09>